북구, 주치의제 본격 시행…50세 이상 무료 건강관리

지역 의료기관 20곳서 참여자 모집

건강검진·방문진료 등 맞춤형 지원

2029년까지 사업비 100억원 투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만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구형 주치의제'를 본격 시행한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역 일차의료기관 20곳에서 주치의제 참여자 등록을 시작하고 주민들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주치의제는 주민들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심 일차의료 사업이다. 만성질환 관리와 질병 예방은 물론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북구는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북구는 오는 2029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입해 북구보건소와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20곳이 협력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치의제에 등록한 주민에게는 개인별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등을 평가한 뒤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록 주민은 건강 상태에 따라 건강검진과 운동·식이·복약 교육, 질병 및 약물 관리, 방문 진료·간호, 전문 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보건·복지·돌봄 자원과도 연계해 통합적인 건강관리도 지원받는다.

북구에 주소를 둔 만 5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20곳 중 한 곳을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의료기관 명단은 북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적 건강관리까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지난 8일 청사 내 들불홀에서 '함께가정 약속식'을 열고 가족 구성원이 가사와 돌봄을 함께 나누는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공〉

서구, 30일간 '가사·돌봄 나누기' 도전

31가정 112명…내달 6일까지

실천 사전·사후 진단 변화 확인

김이강 "생활 속 양성평등 확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가족 구성원이 가사와 돌봄을 함께 나누는 문화 확산에 나섰다.

11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남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함께가정 약속식'을 열고 가족 구성원이 가사와 돌봄을 나누는 30일 실천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에는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등 31가정 112명이 참여하며, 다음달 6일까지 각 가정에서 정한 역할을 나눠 맡는다.

참여가정은 약속식에서 식사 준비와 설거지, 자녀 돌봄 등을 평소 누가 맡고 있는지 살펴보고 구성원별로 새로운 역할을 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살림과 생활관리, 자녀 돌봄·교육 등 100가지 활동이 담긴 '함께카드'를 활용했다.

각 가정은 정해진 역할을 실천하고 확인표에 기록하며, 매주 대화·가사·점검·돌봄을 주제로 가족 미션을 수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참여자들과 실천 과정을 공유한다.

3주차에는 중간점검을 통해 실천 상황을 돌아보고 역할을 조정하며, 활동을 마친 뒤에는 사후진단으로 실천 전후를 비교하고 가정별 변화 내용을 담은 '변화리포트'를 제공한다.

서구는 지속적인 참여를 돕기 위해 주간 미션 참여 가정에 가족 활동 물품을 지원하고, 참여도와 변화 정도 등을 종합해 우수가정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가족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내가 할게'라는 한마디로 생활 속 양성평등이 시작된다"며 "30일 동안의 작은 실천이 우리 집을 넘어 서구 곳곳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남구 '생활SOC 복합화 사업' 7년 대장정 마무리…9곳 완공

2019년부터 418억원 투입

문화·체육·행정 인프라 확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는 11일 "지난 2019년부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서 호남권 지방자치단체로는 최대 규모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 5개를 가져온 것을 시작으로, 정부 주관 공모에서 3차례 연달아 선정되면서 총 9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생활SOC 복합화 시설을 건립하는데 소요된 재원은 418억원에 달한다.

주민들의 체육·문화생활과 행정서비스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방림 생활문화센터 ▲사직골 생활문화센터 ▲가족사랑 나눔센터 ▲월산4동 행정복합센터 ▲봉선2동 행정복합센터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문화정보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9곳의 리모델링·신축을 마쳤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은 집과 가까운 곳에서 각종 활동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은 주거지 인근에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주민들도 생활체육시설을 통해 건강과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동네마다 새로 조성한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 문화와 여가, 건강과 교육을 아우르는 생활권 거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생활SOC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주민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느냐에 있다"며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삶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광산구, 살던집 기반 주거·돌봄 대전환 모색

15일 구청서 포럼 개최 확산 논의

유휴 어린이집 활용 돌봄거점 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오는 15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지역사회 주거·돌봄 정책 대전환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살던집 프로젝트'의 성과·의미를 짚어보고 연계 정책·전국 확산 방안을 모색한다.

살던집 프로젝트는 병원·요양원 등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존엄한 일상을 누리도록 주거·의료·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정책이다.

행사는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주요 정책 성과·사례 발표, 윤영호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상임대표의 실행 체계 구축 방안 제안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하성규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순주 건국대 교수·나성숙 광산구 통합돌봄과장·방성민 주택관리공단 사장·유병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 참여해 고도화 과제를 발굴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살던집 프로젝트는 시민 존엄을 출발점으로 삼는 주거 기반 통합 돌봄의 길을 열었다"며 "광산의 경험·성과를 전국으로 연결·확산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3일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에 따라 유휴 어린이집을 활용해 조성한 전국 최초 생활권 돌봄 거점 '중간집-선운'을 개소하고 회복기 퇴원 환자 등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옥근 기자

